

국내 학술지 웹DB 구독료 현황과 오픈엑세스에 대한 사서의 인식

What is the Starting Point of Discussions for the Open Access of Korean Journals?

정 경 희(Kyoung-Hee Joung)*

목 차

- | | |
|---|--------------------------|
| 1. 서론 | 4. 국내 학술지 웹DB 구독료 증가율 현황 |
| 2. 국내 학술지 웹DB 현황 | 5. 분석결과 |
| 3. 대학도서관의 국내 학술지 웹DB 구독료 현황 및 가격에 대한 사서 인식 조사 | 6. 결론 |

초 록

우리나라 학술지 오픈엑세스는 어떤 논의의 출발점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할까? 본 논문은 오픈엑세스 촉발점이 되었던 서구의 학술지 위기 현상이 국내에도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재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우리나라 학술지 웹DB 가격의 상승률과 이에 대한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지난 십년간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 국내 학술지 웹DB의 가격은 적게는 1.3배에서 많게는 34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의 웹DB 가격이 아주 비싸다고 인식하는 사서는 많지 않았으며, 향후 도서관에 위기가 될 정도로 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서들은 설문응답자의 35%정도였다. 이러한 현황에 비추어볼 때 적어도 국내의 오픈엑세스는 '학술지 위기'가 주된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보다는, 그것의 또 다른 가치인 공공의 선,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ABSTRACT

What is the starting point of discussions for the open access of Korean journals?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 serials crisis in Western societies are in academic libraries in Korea. The rising of prices of Korean electronic journals in academic libraries and recognition of librarians for it were surveyed. This study found that the subscription fees for web DBs of Korean journals have been increased from 1.3 times to 34 times during the last 10 years. But librarians in the universities did not think that the subscription fees are very high. And the 35% of respondents thought that the subscription fees for the web DBs in academic libraries will be increased to bring to a crisis to libraries.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leading groups of discussions for open access in Korea will be interested in the aspects of public goods and social justice, another values of open access.

키워드: 학술지, 전자학술지, 오픈엑세스, 구독료, 대학도서관, 사서
Journal, Electronic Journal, Open Access, Subscription Fees, Academic Library, Librarian

*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겸임교수(libinfor@hanmail.net)
논문접수일자: 2008년 8월 30일 최초심사일자: 2008년 8월 29일 게재확정일자: 2008년 9월 19일

1. 서론

1.1 연구내용 및 방법

국내 학술지의 오픈엑세스는 필요한가? 서구의 경우 오픈엑세스는 학술지 위기(serials crisis)로부터 촉발되었다고 보인다. 오픈엑세스의 필요성을 다루는 논문에서 자주 인용되는 ARL(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회원 도서관들의 학술지 구독료 상승 및 구독학술지 수 증가, 학술지 가격 상승에 대한 통계(ARL 2005)는 미국에서의 학술지 가격이 얼마나 급상승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ARL는 학술지 가격의 급상승으로 인한 도서관의 학술지 구독 위기 문제가 학술출판의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판단하고, 학술출판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SPARC이라는 조직을 구성한 바 있다. 이 조직을 통하여 ARL는 도서관의 학술지 구독 위기를 도서관계 밖 즉, 연구자 집단에게 알리고, 연구자 집단은 이 문제를 사회정의 차원의 논의로 확장시키게 되었다. 즉, 동료평가(peer review)를 거친 학술논문을 인터넷을 통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공의 선(public good)이라고 보았다. 이들은 학술커뮤니케이션에서 이러한 공공의 선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을 오픈엑세스라고 명명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하였다.

국내에서도 문헌정보학계 연구자들에 의하여 2000년대 이후 오픈엑세스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또한 일부 도서관 및 학술기관에서 오픈엑세스 리포지토리 구축 등 오픈엑세스의 실질적 결과물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오픈엑세스 논의에서 핵심이 되어야 국내 연구자들에게 그 논의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것은 아마도 이 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는 어떤 동기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영미권의 경우 ARL의 통계가 보여준 학술지 가격의 상승률과 그것을 위기로 받아들인 도서관 사서들의 인식이 오픈엑세스의 촉발점이었다.

현재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우리나라 학술지 웹DB 가격의 상승률은 어떠한가? 그리고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국내 학술지 웹DB의 현재 가격 및 향후 가격 상승률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오픈엑세스 논의를 전개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즉, 앞서 언급했듯이 국외의 경우와 같이 오픈엑세스가 도서관의 학술지 위기인식으로부터 연구자 집단의 공공의 선을 구현할 수 있는 학술커뮤니케이션 논의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중반 들어 오픈엑세스에 대한 논의 및 연구, 실제적 결과물도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서구와 같은 학술지 가격의 위기, 웹DB 가격의 급상승이 오픈엑세스 논의의 배경이었을까? 본 연구는 국내 학술지 웹DB 가격의 상승 현황과 이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 오픈엑세스가 서구와 유사한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사 및 연구하였다. 첫째, 국내 학술지 웹DB 가격 및 오픈엑세스에 대한 대학도서관 사서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대학도서관은 전체 관중의 도서관 중 학술지를 가장 많이 구독하는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오픈엑세스의 필요성을 제시한 ARL는 대학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학술지 가격의 문제를 회원기관의 통계자료를 통하여 외부에 알렸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대학도서관의 학술지 가격상승 혹은 학술지 웹DB 가격 및 그에 대한 사서의 인식은 국내 오픈엑세스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 학술지 웹DB의 최근 10년간 가격상승률 현황을 조사하였다. 국내 학술지 웹DB가 상업화 되어 대학도서관에 제공된 것은 대략 1990년대 후반이었다. 따라서 대략 10년간 대학도서관의 국내 학술지 웹DB 가격 현황을 파악하면 그 상승률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은 국외 대학도서관의 학술지 위기현황이 국내 학술지에도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으며, 학술지 가격이 국내 오픈엑세스의 중요 동인이 될 수 있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을 것이다. 셋째, 국내 학술지 웹DB의 질적 수준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학술지 웹DB 중 학술진흥재단의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 비중을 파악해보았다. 넷째, 국내 학술지 웹DB 구독기관 현황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국내의 전체 대학도서관 중 국내 학술지 웹DB를 구독하고 있는 도서관 현황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다른 어떠한 관중보다 학술적인 서비스를 중시하는 대학도서관에서 학술지 웹DB를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들의 학술지 웹DB 구독현황은 현재

국내 학술지 웹DB 가격과 관련한 분석에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내용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첫째, 학술지 가격 및 오픈엑세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대학도서관의 국내 전자학술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둘째, 웹DB 가격 상승률을 조사하기 위하여 대학도서관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5개 유형으로 대학도서관을 구분하고 이들 유형에 속하는 9개관의 국내 전자학술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서면인터뷰 실시하였다. 셋째, 국내 학술지 웹DB의 질적 수준 및 구독기관 현황은 해당 웹DB 제공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 웹사이트에 공표된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 목록, 『한국도서관연감 2007』의 대학도서관 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1.2 선행연구

국외의 경우 학술지 구독료 및 웹DB 가격의 문제는 초기 오픈엑세스 연구에서 종종 다루어졌다. Odlyzko(1997), Tenopir와 King(1998) 등의 연구는 미국 도서관에서 학술지 가격의 문제를 다룬 바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Greco 등(2007)이 대학도서관 예산과 학술지 가격의 문제를 지적하며, 오픈엑세스의 효과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다. 또한 최근 국외에서는 오픈엑세스 방식의 학술커뮤니케이션의 경제성에 대한 연구(Stern 2005; Willinsky 2005; Cockerill 2006; Navian and Strarratt 2007)들이 다수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수행된 오픈엑세스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오픈엑세스 논의의 방향을 파악해 볼 수 있게 한다. 그동안 국내 학술커뮤니케이션 현황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은 주로 국내 학술지의 저작권 문제(정경희 2002; 이재민 2005), 국내 연구자들의 오픈엑세스에 대한 인식(조종민 2006; 노류하 2006), 국내 오픈엑세스 전개의 방향성(윤희윤, 김신영 2007; 황옥경 2005) 등에 대한 것이었다. 이들 연구를 통하여 국내 연구자들이 오픈엑세스에 매우 호의적이며, 국내 학술지의 저작권이 매우 모호하여 Web DB 상업화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오픈엑세스를 위해서도 적절하지 않은 상태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오픈엑세스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 학술지의 웹DB 가격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 국내 학술지 웹DB 현황

2.1 학술지 웹DB의 질적 수준

현재 국내 학술지 웹DB는 DBpia와 KISS 두 개의 대규모 웹DB와 새롭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e-Article, 뉴논문 등 대략 네 개로 정

리해될 수 있다. 이들 각 웹DB에 수록된 학술지 중 학진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의 비중을 살펴보았다(표 1 참조). 수록된 학술지 종수가 가장 많은 KISS DB의 경우 2008년 4월 기준, 제공되는 전체 학술지가 1362종이었으며, 이중 657종이 학진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였다. 즉, KISS 제공 학술지중 약 48%가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였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DBpia는 2008년 1월 기준 889종의 학술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중 329종이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였다. DBpia 제공 학술지 중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의 비율은 37%였다. e-Article과 뉴논문의 수록 학술지 종수와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의 비율은 앞서 두개의 대규모 웹DB보다 훨씬 적었다. 또한 전체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 대비 웹DB별 서비스 학술지를 보면, KISS가 42%, DBpia가 21%였다.

2008년 5월 기준 학진 등재(후보) 학술지는 총 1582종이다. 이중 1014종(64.1%)이 네 개의 웹DB 중 적어도 한 개의 DB를 통해 제공되고 있었다. 두 개 이상 DB에서 동시에 서비스 되고 있는 학술지는 50(3.2%)종이었다.

학진의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라는 것이 반드시 학술지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들 학술지는 그 질

〈표 1〉 국내 학술지 웹DB의 학진 등재(후보) 학술지 서비스 현황

	수록 학술지 종수	등재(후보) 학술지 종수(비율)	전체 등재(후보) 학술지 대비 웹DB의 등재(후보) 학술지 비율	DB별 기준일
DBpia	889	329(37.0%)	20.8%	2008.1
KISS	1362	657(48.2%)	41.5%	2008.4
e-Article	443	64(14.4%)	4.0%	2008.5
뉴논문	45	16(35.6%)	1.0%	2008.8

적 수준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내 학술지 웹DB의 경우 수록 중수의 학술지가 많은 웹DB에 질이 높은 학술지가 더 많이 제공되고 있었다. 또 모든 DB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학술지의 비중은 제공 학술지 전체 중 50%를 넘지 않았다. 만일 대학도서관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학술지만을 비용을 지불하고 구독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현재 도서관에서 구독하는 웹DB 가격에는 비구독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학술지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DB 수록 학술지 중 일부를 구독하기 위하여 전체 중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내의 등재(후보) 학술지 중 약 36%는 현재 국내의 상용 웹DB에서 서비스되고 있지 않아, 이들 학술지에 대한 별도의 구독료 지출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웹DB 구독기관 현황

2008년 8월 현재 국내의 대규모 웹DB인 DBpia와 KISS를 구독하고 있는 기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DB 제작사의 홈페이지에 있는 구독기관 리스트를 조사하였다.

DBpia의 경우 총 602개 기관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중 학회를 뺀 501개 기관이 실제 구독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¹⁾ KISS는 전체 리스트에 535개 기관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중 학회 3군데를 제외하면 532개 기관이 실제 구독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두개 웹DB를 구독하는 기관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두개 웹DB의 전체 구독기관 중 대학도서관은 각각 46%, 49%로 가장 큰 구독집단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연구소(23%, 22%)였다. 정부나, 초중등교, 공공도서관, 박물관, 일반 회사

<표 2> 국내 학술지 웹DB 구독기관 현황

구독기관 \ 웹DB구독기관수	DBpia	KISS	비고
대학도서관	229(15)	262(14)	외국대학도서관(()안의 숫자) 포함한 수입
연구소	114	115	
회사	41	36	
정부	34	25	
초중고교	22	8	DBpia: 고교 21개 기관 KISS: 초등 1, 중등 1, 고등 6개 기관
공공도서관	21	19	
박물관 및 미술관	17	2	DBpia의 경우 미술관이 1개 포함됨
공단 및 공사	12	16	
특수도서관	7	5	특수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LC 등)
병원	2	36	
기타	2	8	
총	501	532	

1) 두 개 업체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문의한 결과 구독기관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학회를 제외한 것이 현재의 DB 구독기관이라는 답변을 얻었음(2008년 8월 13일).

및 공사, 병원 등도 학술지 웹DB 구독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서관연감 2007』 제2부 도서관 통계 중 제4장 '대학도서관 현황'에 수록된 대학도서관은 모두 516개관이다. 이중 통계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지 않은 분관을 제외하면 448개 기관이다. 이들 448개 기관을 우리나라 전체 대학도서관 수로 보았을 때, 대학도서관 중 47.7%가 DBpia를, 55.4%가 KISS를 구독하고 있다.

또한 『한국도서관연감 2007』 통계편에 수록된 대학도서관 448개 기관을 기준으로 웹DB 구독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DBpia를 구독하는 기관은 207개 도서관, KISS를 구독하는 기관은 232개 도서관이다. 두개 DB 모두를 구독하는 기관은 172개 도서관이다.

도서관 통계에 제시된 자료비²⁾를 5억 미만에서부터 20억 이상을 5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속하는 도서관 수를 추출해 보면 <표 3>과 같다. 두개 DB 모두를 구독하는 172개 도서관의 자료비를 이 5단계를 기준으로 구분해보았다. 자료비가 1억 미만인 대학도서관은 137개이며, 이중 두개 DB를 모두 구독하고 있는 도

서관은 19개 기관으로 이 유형의 도서관 중 겨우 13.9%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자료비가 5~10억 미만인 도서관들 중에서는 83.3%가 두개 DB를 모두 구독하고 있었으며, 20억 이상인 도서관들 중에서는 89.5%가 두개 DB 모두를 구독하고 있었다. 이것은 대학도서관의 자료비가 적을수록 학술지 웹DB를 구독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대학도서관의 국내 학술지 웹DB 구독현황 및 가격에 대한 사서 인식 조사

3.1 설문조사 개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국내 학술지 웹DB 구독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구독 현황 및 구독하고 있지 않을 경우 그 이유, 라이선스 체결방법, 구독료에 대한 인식 및 향후 가격 변동, 오픈액세스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설문조사하였다.

<표 3> 대학도서관 자료비 현황에 따른 학술지 웹DB 구독 현황

자료비	도서관수(개)	DBpia와 KISS 모두 구독하는 대학도서관
1억 미만	137	19 (13.9%)
1~5억 미만	123	67 (54.5%)
5~10억 미만	42	35 (83.3%)
10~20억 미만	38	29 (76.3%)
20억 이상	19	17 (89.5%)
자료비 정보 없음 ³⁾	89	5
총	448	172

2) 자료비는 『한국도서관연감 2007』 제2부 도서관 통계 중 제4장 '대학도서관 현황' 편에 제시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였음.

설문조사는 『한국도서관연감 2007』 제2부 도서관 통계 중 제4장 '대학도서관 현황' 부분에 수록되어 있는 대학도서관의 국내 학술지 웹DB 담당자 중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이메일이 제공된 사서 20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02명 중 162명이 자료비 1억 이상인 대학도서관 사서들이었다. 즉, 본 연구의 설문대상 중 80%는 자료비 1억 이상인 대학도서관의 사서들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학술지 웹DB 담당자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정기간행물 담당자 혹은 수서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설문조사는 2008년 2월 15일 ~ 8월 6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설문발송대상자 중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이메일이 반송된 5명을 제외한 197명 중 54명이 설문응답지를 보내와 설문응답률은 27.4%였다.

설문응답자 54명 중 무응답자 1명을 제외한 53명의 인구통계적 분포는 <표 4>와 같다.

설문응답자들의 직급(45명 응답)은 팀장(10

명), 과장(6명), 계장(8명), 주임(3명) 등 다양하게 구성되었으며, 담당업무(50명 응답)는 업무총괄(7명: 정보자료과, 디지털정보팀, 전체 업무 총괄 등), 수서 담당(19명), 연속간행물 및 전자학술지 관리(22명) 등으로 나타났다. 설문응답자들이 소속한 도서관의 자료구입비(2007년도 현황⁴⁾을 살펴보면 <표 5>에서처럼 그 금액이 10억 이상인 대학이 전체 응답자 중 37%를 차지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자료비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자료비 규모가 클수록 본 설문참여율이 높았다. 『한국도서관연감 2007』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대학도서관 448개관 중 자료비 20억 이상인 대학도서관은 19개관인데, 이 중 본 설문에 6개관의 사서가 참여하여 해당 자료비 기준 내의 도서관 중 31.5%가 참여하였다. 마찬가지로 파악하였을 경우 자료비 10~20억 미만인 38개 도서관 중 14개관 사서가 참여하여 36.8%, 5~10억 미만인 42개 도

<표 4>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적 분포

응답자 성별			응답자 연령			응답자 근무기간		
구분	명	%	구분	명	%	구분	명	%
남	32	60	20대	0	0	10년 이하	9	17
			30대	15	28	10~20년	27	51
여	21	40	40대	27	51	20~30년	17	32
			50대	11	21	30년 이상	0	0
총	53	100	총	53	100	총	53	100

3) 『한국도서관연감 2007』에는 자료비 정보가 없는 대학도서관의 수가 97개관이었다. 이들 도서관 중 한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홈페이지의 회원고 편람(<http://www.kpula.or.kr/present/view/list.php>)에 자료구입비가 제시되었거나,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홈페이지의 도서관예산 현황(<http://www.knula.or.kr/memuniv/chartlist3.php>)에 자료구입비가 제시된 경우 이 데이터를 추가하였다. 데이터를 추가한 대학도서관은 8개관이다.
 4) 대학 캠퍼스가 둘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을 경우 도서관에서 국내 학술지 웹DB를 각 캠퍼스별로 구입할 경우 설문응답자가 소속한 캠퍼스의 자료구입비를 선택하고, 양 캠퍼스 도서관에서 통합하여 구입할 경우 양쪽 캠퍼스 자료구입비를 합산한 것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서관 중 14명이 참여하여 33.3%, 1~ 5억 미만인 123개관 중 15명이 참여하여 12.2%, 1억 미만인 137개관 중 5개관 사서가 참여하여 3.6%였다. 즉, 본 설문참여자들은 대학도서관 자료비가 5억 이상인 대학 중 평균 34%가 참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자료비 1억 미만인 대학도서관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직원의 이메일을 제공하지 않아 설문지를 발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3.2 설문조사 결과

비교적 규모가 큰 두개의 학술지 웹DB(KISS와 DBpia)와 최근 서비스를 시작한 두개의 웹

DB(E-Article, 뉴논문) 등 모두 네 개의 국내 학술지 웹DB 구독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86%가 KISS와 DBpia를 모두 구독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두 개의 대규모 웹DB만 구독하는 경우와 두개의 웹DB와 더불어 신생 웹DB를 함께 구독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응답자중 웹DB를 구독하지 않는 경우는 1개 기관에 불과하였다. 개별 DB별로 구독상황을 살펴보면, KISS는 53개 기관이, DBpia는 47개 기관이, 뉴논문은 17개 기관이, E-Article은 11개 기관이 구독하고 있었다(표 6 참조).

특정 웹DB를 구독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가격이 비싸다는 것에 가장 많이 답하였으며(38%), 이용자의 요구가

〈표 5〉 설문응답자들이 소속한 도서관의 자료구입비(2007년도) 현황

자료구입비	응답자	빈도(명)	비율(%)
1억 미만		5	9
1~5억 미만		15	28
5~10억 미만		14	26
10~20억 미만		14	26
20억 이상		6	11
총		54	100

〈표 6〉 구독중인 국내 학술지 웹DB 현황

구독중인 웹DB명	응답자	빈도(명)	비율(%)
KISS만 구독		4	9
KISS와 E-Article 구독		1	2
KISS와 DBpia 구독		25	46
KISS와 DBpia, E-Article 구독		5	9
KISS와 DBpia, E-Article, 뉴논문 구독		5	9
KISS와 DBpia, 뉴논문 구독		12	22
모두 구독하지 않음		1	2
총		54	100

없다(32%)는 것도 중요 이유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에 응답한 경우에는 가격도 비싸고, 이용자 요구도 없으며, 제공되는 학술지의 가치도 떨어진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표 7 참조).

웹DB를 구독하는 방식으로는 제공되는 학술지 전부를 구독하는 경우가 선별하여 구독하는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로는 선별하여 구독하되, 일정한 금액에 달하면 웹DB 전체를 제공해주거나, 전체를 구독하되, 보존용 백업시디는 구독금액에 맞추어 선별하여 구입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었다(표 8 참조).

앞서 선택한 방식으로 웹DB를 구독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26명이 응답하였다. 제공되는 학술지 모두를 구독한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를 웹DB 업체의 가격 정책상 선별구입보다 전체 구입이 유리하다는 것(8명)과 이용자 서비스 확장을 위해서(6명), 대학의 요구가 있어서(1명)라고 답하였다. 또한 웹DB 중 선별

하여 구독한다고 응답한 경우엔 예산 부족(7명)과 대학에 설치된 학과에 필요한 학술지만을 구독하기 위하여(3명), 밴더들의 요구로(1명)라고 응답하였다.

국내 웹DB 가격을 5점 척도로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 중 59%가 비싸다에 응답하였다. 매우 비싸다에 답한 경우는 비교적 적은 13%였으며, 가격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26%였다(표 9 참조).

앞으로 국내 학술지 웹DB의 가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 중 44%가 현재보다는 비싸지겠지만, 도서관에 부담이 될 정도로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또한 도서관에 부담이 될 정도로 고가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35%에 이르렀다. 현재의 가격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 또한 19%였다. 웹DB 가격에 대한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인식이 매우 다양한 것으로

〈표 7〉 특정 학술지 웹DB를 구독하지 않는 이유

미구독 이유	응답자	빈도(명)	비율(%)
고가이므로		13	38
이용자 요구가 없으므로		11	32
제공되는 학술지의 가치가 떨어지므로		5	15
기타		5	15
총		34	100

〈표 8〉 구독방식

구독방식	응답자	빈도(명)	비율(%)
웹DB에 수록된 학술지 모두 구독함		28	57
웹DB에 수록된 것 중 선별하여 구독함		19	39
기타		2	4
총		49	100

〈표 9〉 국내 학술지 웹DB 가격에 대한 인식

인식	응답자	빈도(명)	비율(%)
	너무 비싸다	7	13
	비싸다	32	59
	적절한 가격이다	14	26
	저렴하다	1	2
	너무 저렴하다	0	0
	총	54	100

나타났다. 기타로는 외국 DB 제작사가 국내 학회의 저작권을 위임받게 될 경우 가격상승이 되어 많은 도서관에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응답이 있었다(표 10 참조).

국내 학술지의 오픈엑세스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들 대다수인 80%가 적극적으로 오픈엑세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반대로 오픈엑세스가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7% 있었다. 기타 응답자들은 연구자의 저작권을 무시한 무조건적인 오픈엑세스는 맞지 않으며, 오픈엑세스를 찬성하지만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을 다 파악하지 못하여 답하기 힘들다는 조심스러운 답변도 있었다. 또한 저작권의 문제해결과 더불어 연구자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한 후에 오픈엑세스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표 11 참조).

마지막으로 개방형 질문형식으로 국내 학술지의 오픈엑세스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19명의 응답자들이 아래와 같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들의 의견은 대략 첫째, 국가기관이나 협의체에서 오픈엑세스 사업을 진행해야 하며(6명), 둘째, 학회 등 논문생산자의 상황과 저작권의 문제를 고려하여 오픈엑세스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4명), 셋째, 국내 학술지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므로, 오픈엑세스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것(4명), 넷째, 오픈엑세스를 위해서는 비용 및 관리의 문제를 선결해야함(2명), 오픈엑세스는 힘들 것임(1명) 등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표 12 참조).

〈표 10〉 국내 학술지 웹DB 가격 변화에 대한 인식

인식	응답자	빈도(명)	비율(%)
	도서관에 부담이 될 정도로 고가화 될 것임	19	35
	현재보다 비싸지겠지만, 도서관에 부담이 될 정도로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임	24	44
	현재의 가격 수준을 유지할 것임	10	19
	기타	1	2
	총	54	100

〈표 11〉 국내 학술지의 오픈엑세스에 대한 인식

인식	응답자	빈도(명)	비율(%)
적극적으로 오픈엑세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43	80
오픈엑세스가 이루어질 필요가 없음		4	7
잘 모르겠음		4	7
기타		3	6
총		54	100

〈표 12〉 국내 학술지 오픈엑세스에 의견

유형	의견
국가기관이나 협의회에서 오픈엑세스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능한 협의체, 대학도서관연합회 등을 통하여 실시해야 함. 과학기술학회마을 같은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곳이 더 많아지고 주제별로 나뉘어서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함. 국내학회지 원문시장이 시작된 지 10여년이 되었음. 그동안 해당 패키지의 구독비용은 약 3~4배 증가하였고, 업체들도 더 이상 수요창출시장이 없으니, 정해진 학회들이 이쪽저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임. 해외보다 싼 비용으로 공급하고 있다고는 하나 구독금액이 계속 급격히 증가되어 도서관에 큰 부담임. 또한 업체의 영세성으로 도산되어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도 우려됨. 이러한 사항을 방지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오픈엑세스의 지원 및 보강이 필요함. 특히, KERIS,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각 대학 등 여러 기관에서 중복원문 구축하지 말고 분업 및 메인 창구를 정하여 원문구축을 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제도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자료를 생산하는 학회나, 자료를 이용하는 이용자, 전국 사서, 우리 모두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저렴한 DB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새로 기관을 만들어서 전담하거나, 기존 업체나 정부산하 기관을 선정하여 지금까지 계속 가격이 인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면 좋겠음. 학진 등 비영리단체에서 원문 DB 구축하여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KISTI에서 제공하는 학회마을과 같은 사업이 더 많이 활성화되어야 함.
학회 등 논문생산자의 상황과 저작권의 문제를 고려하여 오픈엑세스를 진행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이 논문을 작성할 때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오픈엑세스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하지만 학회의 차원이라면 또 다른 문제임. 학회에서 학회지 구독이나 e-journal 제공료를 받지 않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학회가 몇 개일까요? 저작권도 문제를 제기하면 아주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임. 이용의 측면에서는 대찬성이지만, 공급의 측면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창작의 의욕이 떨어지거나 공급체제 유지가 어렵다면 그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함. 국내 학술 DB가 외국보다 저렴한 것은 사실임. 하지만 아직까지도 학회지 DB를 전문적으로 상품화시키지 못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오픈엑세스를 한다면 자칫 국내 학술자료의 질적인 문제로까지 거론될 수 있음. 우리 학회지 DB 가격이 저렴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나 연구기관이 연구비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모두 무료로 볼 수 있게 된다면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될 듯함. 저작권이 강화되고 있는 요즘 추세를 감안한다면 연구자들은 연구만을 해서도 충분히 의식주가 해결될 수 있을 때만이 오픈엑세스가 될 것이라 생각함. 오픈엑세스 필요성을 느끼더라도 학회의 열악한 예산 때문에 추진하지 못하는 곳이 상당수 있을 것임. 그러나 더 많은 대부분의 학회는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할 것으로 봄. 오픈엑세스가 이용자측면에서는 좋지만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저작권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국내 학술지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므로, 오픈엑세스가 이루어지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학술지의 학부생 이용률이 점차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국내 국외 학술지 모두 오픈엑세스가 이루어지면 좋겠음. 국내학회지 상용 웹DB 가격이 낮아져야하며, 국내학회지의 오픈엑세스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

좋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길 바랍. 웹DB 이용자들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며, 이용률 또한 현저히 높게 나타남 • 오픈엑세스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외국에 비해 오픈엑세스 되는 학회지가 미미함. 점차 확대되어야 할 것임.
오픈엑세스를 위해서는 비용 및 관리의 문제를 선결해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용화는 좋은데 각 회사의 디비에 중복타이틀이 없어야 하고, 엠바고가 없어야함. 엠바고로 인해 도서관은 페이지와 디비를 모두 구축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음. 오픈엑세스일지라도 누군가가 관리해야되며 어떤 형태로든 비용(정부지원 등)이 요구될 것임. 편리함 뒤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할 듯 함. • 오픈엑세스일 경우 통합검색 및 관리를 제공하여 도서관이 공용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 되어야 할 듯.
오픈엑세스는 힘들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회지는 학회와 개인에게 권리가 있어 모두를 쉽게 오픈엑세스로 유도하기는 힘들 것임. 다만,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음. 현재의 DB제공은 권리처리에 문제가 많아 바뀌어야 할 것임.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출판사에서 국내 학회와 계약하여 원문을 제공하고 있는 학회가 있는데 국내 업체들의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제시되기 때문인 것 같음. 이것은 앞으로 도서관 예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임. • 중복구독방지 및 가격인하 필요.

4. 국내 학술지 웹DB 구독료 증가율 현황

4.1 조사 개요

대학도서관의 국내 학술지 웹DB 구독료 증가율을 파악하기 위하여 앞서 54명의 설문응답 기관 중 10개 기관을 선별하여 지난 10년간 웹DB 구독시점부터 2008년 현재까지의 국내 대형 학술지 웹DB 중 한개 DB에 대한 구독료 현황을 조사하였다. 10개 기관을 선별한 것은 대학의 규모별 웹DB 가격 증가율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국내 학술지 웹DB 업체는 2007년도 대학도서관 웹DB 구독료를 대학의 총 정원수에 따라 5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표 13 참조).

이에 따라 설문응답자 54명을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2006) 『국립대학도서관보』와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2006) 『회원고편람 2006』에 제시된 이용자수를 근거로 5개 유형으

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설문응답에 성실히 답변한 2명의 응답자를 선별하여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대학도서관의 전체 자료비는 『한국도서관연감』에 밝혀져 있지만, 학술지 웹DB 구독료가 별도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 대학도서관을 통하여 조사해야만 했다. 또한 앞서의 설문지에 연간 학술지 웹DB 구독료를 포함시키지 못한 것은 대학도서관이 년도별 DB 구독료를 세세하게 밝히는 것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설문에 성실히 응답한 10명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간의 국내 학술지 웹DB 구독방법 및 가격 문제에 대하여 인터뷰하고, 본 연구를 위하여 해당 도서관의 구독시점부터 현재까지의 구독료를 밝혀줄 것을 의뢰하였다. 이후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년도별 구독료를 기록할 수 있는 차트를 이메일로 보냈으며, 9개 기관으로부터 응답지를 얻었다. 9개 기관은 A유형을 제외하고는 유형별로 2개 기관이었다. 인터뷰는 8월

〈표 13〉 국내 학술지 웹DB 제공업체에서 구분한 대학도서관 유형

유형	A	B	C	D	E
총 정원	2만 이상	1~2만	7천~1만	3천~7천	3천 이하
년간 구독료	2500만원	20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2일~10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4.2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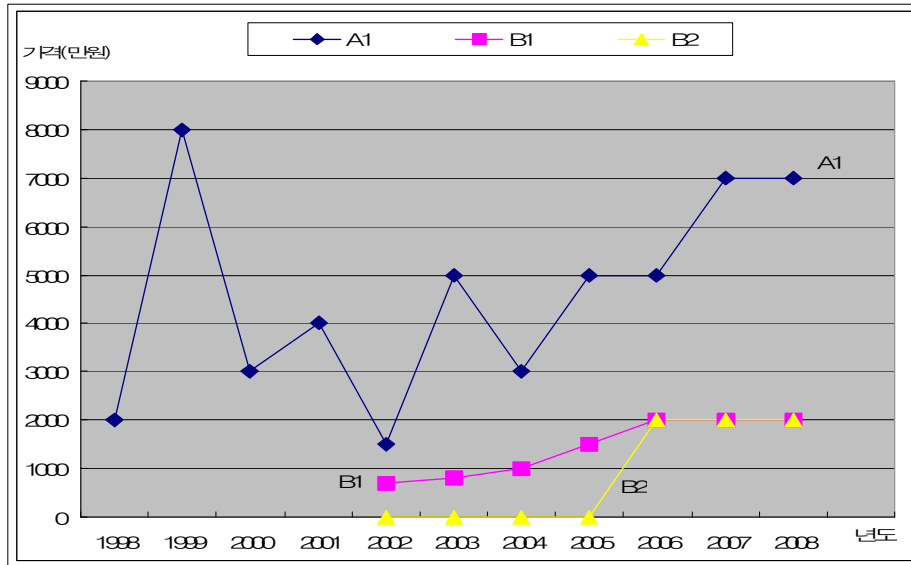
전화인터뷰를 통하여 현재 각 대학도서관이 국내 웹DB를 구독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웹DB에 포함된 학술지 중 새롭게 구독하기 시작하는 것을 구매비용으로 처리하고, 기존에 구매하고 있던 학술지를 새로운 계약 년도에 계속 보게 될 경우 업그레이드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지불하고 있었다. 또한 웹DB 업체에서 제공하는 다른 DB를 구매할 경우 학술지 웹DB는 무료로 제공하다가 특정 년도부터 비용을 지불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웹DB 업체는 계약서상 몇 개의 학술지를 구매했던간에 모든 학술지를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구매비와 구독비를 모두 합친 총비용을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비용 증가율을 파악해보았다.

5개 유형의 대학의 구독료가 크게 차이가 나므로 A형과 B형을 하나의 그래프에서, C, D, E형을 또 다른 그래프로 처리했다. 우선 〈그림 1〉,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유형의 대학이라도 가격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같은 유형에 속한다 할지라도 그 유형 내에서 총 정원수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유형의 대학에서 구독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A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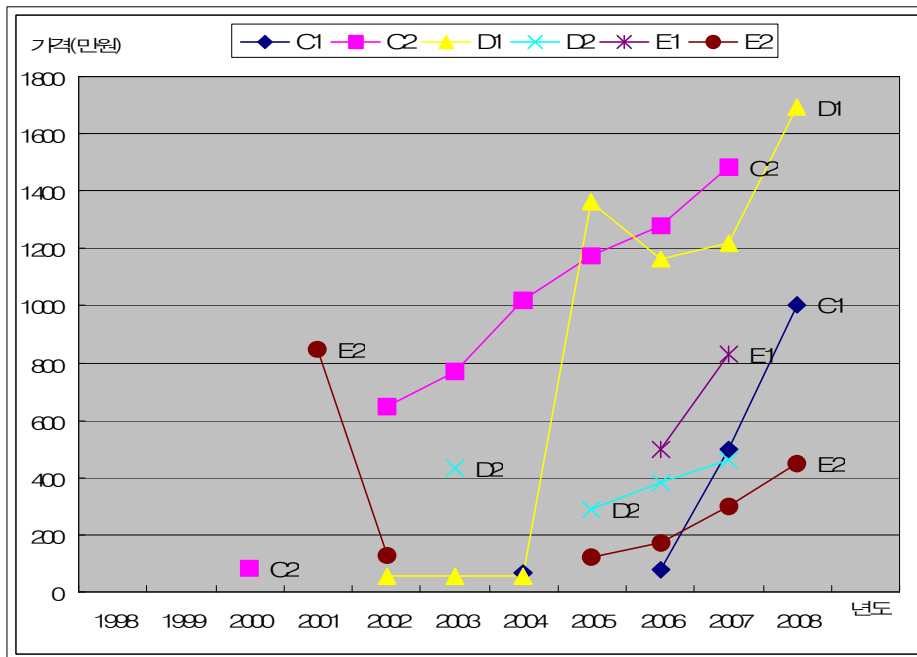
대학은 구독료의 증감이 매해년도 되풀이되면서 상승하는 추세였다. B유형에 속한 두개 대학은 2002년 서로 다른 구독료로 시작했지만 2006년부터 DB 제공업체에서 정한 B유형 대학의 표준가인 2000만원에 이르러 지속되고 있는 상태였다. B1의 경우 700만원으로 시작하여 2000만원에 이르기까지 6년 사이 구독료가 약 3배 증가한 것이며, B2의 경우 초기 3년에는 무료였던 것이 다음해부터 2000만원으로 상승한 것이라 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2〉에 나타난 C1, C2 대학은 모두 초기 구독시 약 70만, 90만원으로 구독하였으나, C1은 2008년에 1000만원, C2는 2007년에 약 1500만원이 되었다. 구독초기에 비해 14배와 16배 증가하였다. D1, D2 역시 구독 첫해년도에 각각 약 50만원(2002년)과 400만원(2003년)으로 구독하였으나 D1의 경우 2008년 1700만원, D2의 경우 2007년에 약 500만원으로, 각각 34배, 1.25배씩 상승하였다.

E1은 2006년과 2007년의 구독료가 각각 약 500만원과 800만원으로 1.6배 상승하였다. E2는 2001년 현재보다 더 높은 가격인 850만원으로 구독하기 시작하여 다음해에 구독료가 약 100만원으로 낮아졌고, 2005년 다시 약 100만원으로 구독하기 시작하여 2008년 현재 450만원에 이르렀다. 2005년을 기점으로 하였을 때 E2의 구독료는 약 4.5배 상승하였다.



<그림 1> A, B 유형 대학도서관의 국내 학술지 웹DB 구독료 증가현황



<그림 2> C, D, E 유형 대학도서관의 국내 학술지 웹DB 구독료 증가현황

5. 결과분석

본 논문의 조사 및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진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를 질적 기준으로 정할 경우, 국내 학술지 웹DB에 수록된 학술지 중 DBpia는 37%, KISS는 48%만이 질적으로 우수한 학술지였다. 웹DB 업체는 질적 수준을 불문하고 웹DB의 양적 확대를 위하여 가능한 많은 학술지를 추가시켜 그 구독료를 점차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의 설문 중 구독방식을 결정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 웹DB 중 필요한 것을 선별하여 구독하지 않는 이유로 웹DB 업체의 가격정책상 선별구입보다 일괄구입이 유리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것은 오픈엑세스 등장 배경으로 설명되는 학술지 빅딜 현상이 이미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학술지 웹DB를 구독하고 있는 기관의 대부분은 대학도서관이며, 대학도서관 중 예산이 적은 대학일수록 그 구독율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현재의 웹DB 가격은 이미 현재로서도 장벽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설문결과도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해 준다. 즉, 특정 학술지 웹DB를 구독하지 않는 것이 고가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제공되는 학술지의 가치나 이용자 요구가 없다는 것 보다 더 많았다.

셋째, 본 조사결과 대학도서관의 유형을 불문하고 웹DB 가격은 1998년 이후로 가장 크게는 34배에서 16배, 14배, 4.5배, 1.25배 등 다양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었다. 이들은 그 상승폭을 불문하고 모두 일정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속적 상승은 규모가 적은 대학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B 유형의 대학의 경우 2006년 이후로, A 유형의 대학의 경우 2007년 이후로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다. 반면, C, D, E 유형의 경우 최근 몇 년간에도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다. 이것은 중소규모의 대학도서관에 초기에는 판촉을 위하여 저렴한 가격(심지어는 무료로)으로 웹DB를 공급하고, 대학도서관에서 웹DB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자원이 된 시점에 그 가격을 올리는 웹DB 업체의 판매전략의 결과로 보인다.

넷째, 본 조사결과 국내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현재의 국내 학술지 웹DB 가격을 '매우 비싸다'고 인식하는 경우(13%)보다 '비싸다'고 인식하는 경우(59%)가 더 많았다. 또한 향후 현재의 웹DB 가격 상승률에 대해서는 대체로 상승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도서관에 학술지 위기를 불러올 정도로 고가화될 것이라는 의견(35%)보다는 가격이 적절히 올라 도서관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44%)이라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다. 현재의 가격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19%)도 적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오픈엑세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로 그것이 도서관계 밖으로 널리 확산되지 못한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즉, 국외의 경우 오픈엑세스 논의의 지렛대 역할을 한 대학도서관 사서의 학술지 가격에 대한 위기의식이 국내에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국내 학술지 웹DB 가격 상승률에 대한 이러한 예상에도 불구하고 본 설문조사에 응한 사서의 80%는 오픈엑세스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오픈엑세스가 학술지 웹DB 가격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만이 아닌 또 다른 어떤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여섯째, 설문응답자들은 국내의 학술지 오픈엑세스가 개별 대학도서관이 아닌 국가대표 도서관이나 기관, 대학도서관연합체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도서관연합체나 국가기관의 주도로 국내 학술지의 오픈엑세스를 위한 논의를 이끌어가고, 여기에 대학도서관의 사서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6. 결 론

2000년대 이후 국내에서 오픈엑세스에 대한 논의는 문헌정보학계 및 도서관 현장을 중심으로 꽤 많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국내 학술지의 오픈엑세스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 오픈엑세스의 필요성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크게는 학술지 가격 및 웹DB 가격의 고가화로 인한 접근제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과 공공의 선을 구현할 수 있는 학술커뮤니케이션 모색으로 압축할 수 있다. 특히 학술지 가격 및 웹DB 가격 상승은 서구 사회에서 오픈엑세스 논의를 촉발시킨 계기였다고 보인다.

본 논문은 서구에서처럼 국내 학술지 웹DB 가격도 우리나라 오픈엑세스 논의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시작되

었다. 본 논문을 통하여 적어도 현재 대학도서관 사서들 중 국내 학술지 웹DB 가격이 위기의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대다수의 의견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오픈엑세스 논의가 도서관계 내에 머물러, 정작 중요한 연구자 집단으로 확산되지 못했던 상황을 설명하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 적지 않은 사서들(35%)은 향후 국내 학술지 웹DB 가격이 도서관에 부담이 될 정도로 고가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본 논문이 객관적으로 향후 국내 학술지 웹DB 가격을 예측하지는 못하였다. 가능하다면, 앞으로 국내 학술지 웹DB 가격의 증가율을 다양한 요인을 가지고 예측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ARL에서처럼, 국내 대학도서관의 연합체 혹은 대표 단체에서는 각 대학도서관의 국내 학술지 웹DB 구독료 등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통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내에서 오픈엑세스 논의를 주도하는 그룹은 외국의 오픈엑세스 동향을 설명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내 학술지의 오픈엑세스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고, 또한 그러한 논의에 있어, 서구 오픈엑세스의 핵심 논리인 '학술지 위기'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오픈엑세스 논의는 학술지 가격의 문제와 더불어 공공의 선, 사회정의의 문제로 확대되어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2006. 『국립대학도서관보』, 제24집. 청주: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 노류하. 2006. 『오픈 액세스 환경에서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연구 : 생물정보학 연구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윤희운, 김신영. 2007. 국내외 문헌정보학 학술지의 오픈 액세스 동향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1): 257-276.
- 이재민. 2005. 『오픈 액세스를 위한 학술논문의 저작권 귀속현황과 개선 방안』.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정경희. 2002. 정보공유적 모델 기반의 학술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 저작권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19(4): 383-399.
- 조종민. 2006. 『오픈엑세스 학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자의 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한국도서관협회. 2008. 『한국도서관연감 2007』.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2006. 『회원교편람 2006』. 대전: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 황옥경. 2005. 국내 도서관에서의 자유이용(Open Access) 학술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방안. 『정보관리학회지』, 22(2): 253-273.
- ARL. 2006. *Monograph and Serial Costs in ARL Libraries, 1986-2006*. ARL Statistics: Published Annually Since 1962. Washington, D.C. ARL Publishing Program, [cited 2008.6.10] <<http://www.arl.org/stats/arlstat/>>.
- Cockerill, Matthew. 2006. "The Economics of Open Access Publishing." *Information Services & Use* 26: 151-157.
- Greco, Albert N. et. al. 2007. "The Changing College and University Library Market for University Press Books and Journals: 1997-2004." *Journal of Scholarly Publishing* 39(1): 265-296.
- McCabe, M. & Christopher M. Snyder. 2004. The Economics of Open Access Journals. Review of Industrial Organization. working paper. [cited 2008.4.20] <<http://ideas.repec.org/p/net/wpaper/0418.html>>.
- Morris, Sally. 2005. "The True Costs of Scholarly Journal Publishing." *Learned Publishing* 18: 115-126.
- Navin, John C. and Jay Starratt. 2007. "Does Open Access Really Make Sense? A Closer Look at Chemistry, Economics, and Mathematic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64(4): 323-327.
- Odlyzko, Andrew. 1997. "The Economics of Electronic Journals." [cited 2008.5.20] <<http://citeseerx.ist.psu.edu/viewdoc/summary;jsessionid=6138FBC014D055282B54B0F8B73870E4?doi=10.1.1.27.9498>>

- Scherlen, Allan and Matthew Robinson. 2008. "Open Access to Criminal Justice Scholarship: A Matter of Social Justic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Education* 19(1): 54-74.
- Stern, David. 2005. "Open Access or Differential Pricing for Journals: The Road Best Traveled?" *Information Today* 29(2): 30-35.
- Tenopir, C. and D. W. King. 1998. *The Transformation of Scholarly Journals: 20 Year Trends in the Economics, Use and Information Seeking Patterns of Scientific Print and Electronic Scholarly Journals* Washington, DC: Special Libraries Association.
- Walters, William H. and Esther Isabelle Wilder. 2007. "The Cost Implications of Open-access Publishing in the Life Sciences." *BioScience*, 57(7): 619-625.
- Willinsky, John. 2005. "Scholarly Associations and the Economic Viability of Open Access Publishing." *Journal of Digital Information* 4(2). [cited 2008.4.20] <<http://jodi.tamu.edu/Articles/v04/i02/Willinsky/>>.